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6.1

담당부서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제 목: 2012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5월 CBSI 1.0p 하락한 65.4 기록

- 2개월 연속 CBSI 하락, 5.10대책 불구 CBSI 하락, 5.10대책 건설업체 체감경기 회복에 큰 영향 못 미친 듯 -

- 2012년 5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0p 하락한 65.4를 기록함.
- 이로써 CBSI는 지난 4월 3.5p 하락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CBSI가 건설 비수기인 2월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함.
- 특히 지난 5월에는 5.10대책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BSI가 하락함으로써 결국 5.10대책이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5.10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는 지속되었고, 지난 한 해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지방 주택시장마저 최근 회복세가 꺾이기 시작한 가운데, 5월 초 포럼산업의 법정관리 신청 영향으로 중견건설사들의 유동성 압박에 대한 위기감이 부각된 것도 CBSI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6월 CBSI 전망치는 5월 실적치 대비 7.2p 상승한 72.6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7.2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6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5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6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CBSI 실적치가 2개월 연속 하락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6월 CBSI는 소폭이나마 전월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통계적 반등 영향으로 전월비 상승한 반면, 중견, 중소기업 지수는 모두 전월비 하락함.
- 지난 3월 전월비 7.2p 하락에 이어 4월에도 전월비 14.3p 하락하며 4월 CBSI 하락을 주도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2개월 연속 지수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 영향으로 전월비 20.9p 상승한 92.3을 기록함.
- 지난 3월 이후 2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해 지난 4월 7개월만에 70선을 넘어섰던 중견업체 지수는 다시 전월비 13.7p 하락한 58.3을 기록해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함.
- 한편,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던 중소기업 지수 역시 5월 들어서는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월비 12.3p 하락한 41.8을 기록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8.1, 93.4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9.6, 72.2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85.7, 84.0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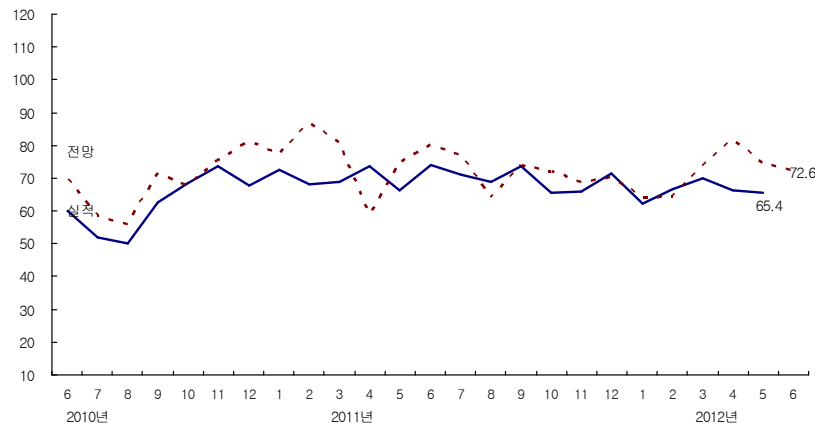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5월 CBSI 1.0p 하락한 65.4 기록, 5.10대책 불구 CBSI 하락

- 2012년 5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0p 하락한 65.4를 기록함.
- 이로써 CBSI는 지난 4월 3.5p 하락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CBSI가 건설 비수기인 2월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함.
- 특히 지난 5월에는 5.10대책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BSI가 하락함으로써 결국 5.10대책이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5.10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었고, 지난 한해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지방 주택시장마저 최근 회복세가 꺾이기 시작한 가운데, 5월 초 풀림산업의 법정관리 신청 영향으로 중견건설사들의 유동성 압박에 대한 위기감이 부각된 것도 CBSI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통계적 반등 영향으로 전월비 상승한 반면, 중견, 중소기업 지수는 모두 전월비 하락함.
- 지난 3월 전월비 7.2p 하락에 이어 4월에도 전월비 14.3p 하락하며 4월 CBSI 하락을 주도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2개월 연속 지수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 영향으로 전월비 20.9p 상승한 92.3을 기록함.
- 지난 3월 이후 2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해 지난 4월 7개월만에 70선을 넘어섰던 중견업체 지수는 다시 전월비 13.7p 하락한 58.3을 기록해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함.
- 한편,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던 중소기업 지수 역시 5월 들어서도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월비 12.3p 하락한 41.8을 기록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1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1.1	68.9	73.8	65.4	66.0	71.6	62.3	66.7	69.9	66.4	65.4	74.5	72.6
규모별	대형	84.6	76.9	100.0	84.6	84.6	83.3	76.9	92.9	85.7	71.4	92.3	78.6	84.6
	중견	72.0	75.0	73.1	68.0	64.0	68.0	69.6	58.3	68.0	72.0	58.3	78.3	66.7
	중소	54.4	52.6	43.9	40.0	46.4	61.8	36.8	45.6	53.4	54.1	41.8	65.5	65.4
지역별	서울	80.2	78.4	91.6	74.1	73.9	72.5	73.7	81.4	74.7	74.1	74.9	82.0	75.6
	지방	57.2	54.6	47.5	52.7	53.8	70.1	47.5	46.5	62.5	54.9	53.6	63.5	7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6월 CBSI 전망치는 5월 실적치 대비 7.2p 상승한 72.6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7.2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6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5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6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CBSI 실적치가 2개월 연속 하락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6월 CBSI는 소폭이나마 전월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 5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0.8p 증가한 74.9를 기록한 반면, 지방업체는 지수는 1.3p 감소한 53.6으로 지방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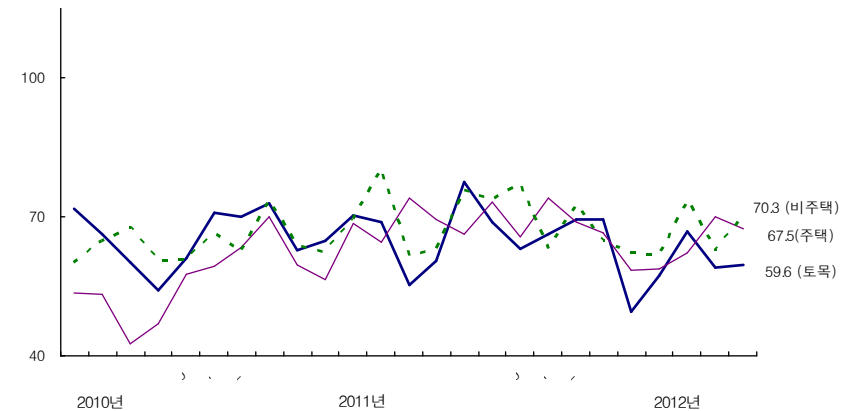
체의 경기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0.8p 개선된 74.9로 지난 4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 보다 1.3p 감소한 53.6으로 3월 62.5를 기록한 이후 지수가 두달 연속 하락한 모습을 보임.

5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보다 5.8p 증가한 73.0

- 5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5.8p 증가한 73.0을 기록,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물량지수는 지난 1월에 56.6으로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월과 3월 각각 4.8p, 5.5p 증가하였음. 4월과 5월에도 지수가 각각 0.3p, 5.8p 증가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함.
- 공종별로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7.4p 증가한 70.3으로 개선된 반면, 주택이 67.5, 토목이 59.6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7.4p 증가한 70.3을 기록해 공종 중 유일하게 70선을 넘어섬. 지난 4월 전월 대비 10.5p나 하락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전월보다 2.5p 하락, 한달만에 다시 70선 이하인 67.5를 기록함. 5.10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0.6p 증가, 59.6을 기록함. 지수가 60선 미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은 특정 업체에 편중된 발전소 및 대형 설비 물량 일부를 제외하고 도로와 철도와 같은 일반 토목물량이 여전히 위축된 상황가운데 있기 때문임.
- 업체 규모별로 중견과 중소기업체는 각각 전월 대비 13.7p, 7.6p 감소해 지수가 위축 되었으나, 대형업체는 지수가 전월 대비 36.3p 상승함. 결국, 대형업체 지수가 전체 공사 물량지수 상승을 주도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4월 전월보다 14.3p나 하락한 71.4로 부진하였음. 이에 대한 강한 반등으로 5월에는 전월보다 36.3p 상승한 107.7을 기록함. 공종별로 비주택 물량과 토목 물량이 전월보다 각각 35.7p, 12.6p 개선 되었음.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4월 보다 13.7p나 하락한 58.3을 기록함. 전월 보다 토목 물량이 13.1p, 주택이 5.9p, 비주택이 5.7p 감소하였음. 결과적으로 모든 공종에서 전월보다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이중 토목 물량지수가 47.8로 토목 물량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6p 감소한 49.1을 기록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공종별로 주택물량지수가 37.8로 주택물량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 물량지수는 서울업체와 방업체가 각각 전월대비 7.7p, 5.3p 증가해 서울과 지방 모두 지수 개선이 이뤄짐. 그러나, 지방업체의 지수는 57.5에 불과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7.7p 증가해 올해 들어 가장 양호한 85.0를 기록함. 토목과 주택이 각각 2.5p 4.6p 감소하였으나, 비주택이 11.8p나 증가해 비주택 중심으로 전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5.3p 증가한 57.5를 기록함. 토목에서 7.1p, 주택과 비주택에서 각각 0.1p, 0.8p 증가하였음.
- 2012년 6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5월 실적치보다 8.1p 증가한 81.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2년 간 물량지수가 80선을 넘어선 적이 없었으며, 비록 80선 이상을 예측하였어도 70선 중반에 그쳤던 점을 감안, 결과적으로 6월 물량지수는 5월 지수 73.0보다 다소 양호한 70선 중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토목물량지수는 5월보다 18.5p 증가한 78.1을, 주택 물량지수는 5월보다 7.4p 증가한 74.9를, 비주택 물량지수는 6.5p 증가한 76.8로 각각 전망함.
- 공종별로 모두 70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중 토목물량지수의 개선 폭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임.

< 공사물량 BSI >

구 분		총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3.0	107.7	58.3	49.1	85.0	57.5
	전망	81.1	107.7	65.2	67.9	90.7	69.1
토목	실적	59.6	76.9	47.8	52.7	64.2	54.7
	전망	78.1	100.0	72.7	58.5	87.6	66.2
주택	실적	67.5	92.3	68.0	37.8	79.1	50.1
	전망	74.9	92.3	75.0	54.5	82.3	63.9
비주택	실적	70.3	100.0	62.5	44.2	83.6	50.3
	전망	76.8	100.0	65.2	62.7	83.4	67.4

주 : 실적은 2012년 5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6월 예측지수임.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 및 자금조달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8.1, 93.4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9.6, 72.2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85.7, 84.0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85.7	107.7	76.0	70.9	90.5	80.5
		전망	86.9	107.7	75.0	75.9	91.5	80.2
	자금조달	실적	84.0	107.7	76.0	65.5	89.1	78.8
		전망	85.7	107.7	75.0	72.2	88.0	82.4
인력	수급	실적	98.1	100.0	96.0	98.2	98.6	97.3
		전망	98.6	100.0	95.8	100.0	99.7	97.3
	인건비	실적	89.6	100.0	100.0	65.5	102.3	70.7
		전망	90.1	100.0	100.0	67.3	100.6	74.8
자재	수급	실적	93.4	100.0	84.0	96.4	92.7	96.0
		전망	95.1	100.0	87.5	98.1	94.6	95.8
	비용	실적	72.2	92.3	68.0	53.6	79.1	62.4
		전망	80.8	100.0	79.2	60.0	87.6	70.7

주 : 실적은 2012년 5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6월 예측지수임.